

‘1세대 카페’ 커피빈마저 매각 수순?... 버랑 끝 프랜차이즈

커피빈, 1500억에 매물로 나와 사측 “진행사항 없어, 사실무근” 할리스·투썸 등 잇단 매각에 커피빈 매각 진위 놓고 촉각

SPC·카페베네·공차 등은 시장 침체에 해외로 눈 돌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 정체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빈코리아(이하 커피빈)는 삼일PwC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삼고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지분 100% 희망 매각가는 1500억 원 수준이다. 희망 매각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커피빈 측은 “매각설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매각과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따로 없다”며 입장 표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커피빈 매각설 진위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의 매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3위권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는 KG그룹에 1450억원에 매각됐다. CJ푸드빌은 지난해 투썸플레이스를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또한 ‘뚜레쥬르’ 매각설이 처음 제기 됐을 당시 CJ푸드빌은 매각설을



서울의 한 커피빈 매장.

/뉴시스

부인했지만, 결국 M&A 시장이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식음료 프랜차이즈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외식 프랜차이즈 매출 증가하고 있기에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뚜레쥬르, 파파이스, TGI 프라이데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이 매물로 나와 있다.

특히 커피빈은 국내 한정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다. 커피빈은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한 브랜드지만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커피빈코리아는 2000년 6월 설립돼 수입 브랜드 유통업체인 스타벅스가 2001년부터 운영 중이다.

반면 공차코리아의 경우 홍콩 등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아 3500억 원에 거래됐다. 최근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와 차별점을 지닌다.

침체한 국내 시장과 반면 해외시장 확장 가능성을 발견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해외시장 공략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상황이지만, 장기간 시장 성장은 정체한 상황에서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기에 해외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는 전략이다.

커피프랜차이즈 전문점 카페베네는 대만에서 식음료와 유통 사업을 진행 중인 ‘안평문창유한공사(安平文創有限公司)’와 대만 중남부 지역 진출을 위한 MF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 대만 중남부 지역 내 카페베네 매장 40곳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브로드웨이점. SPC그룹은 지난 6월 ‘파리바게뜨’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내년 상반기 토론토, 밴쿠버에 첫 매장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미주 지역 사업 확대를 계획한다.

앞서 카페베네는 지난 2013년 카페베네 대만 1호점을 오픈하며 대만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대만 내 1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 오피스 중심가인 네이후 지역에 신규 BI 매장을 오픈했다. 해당 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 등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캐나다에 진출하며 북미 시장 확대에 나섰다.

SPC그룹은 지난 6월 캐나다에 현지 법인인 ‘파리바게뜨 캐나다’ 설립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도시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다. 앞서 SPC그룹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를 4대 거점으로 삼는 글로벌 사업 확대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2030년까지 캐나다 내 100개 이상 점포를 열겠다는 목표다.

SPC그룹은 현재 프랑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진출해 400여 개의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톈진에 생산 공장을 준공했으며, 9월에는 캄보디아에 현지업체 손잡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바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대만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통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라며 “이미 해당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조기 졸업한 성공 역량이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카페베네는 유자생감차 등 과일 청 제품을 필리핀에 수출,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청춘 대신 파리만... “매출 80% 줄어, 권리금도 포기”

르포 | 식당·유흥업 줄폐업... 신촌 대학가 가보니

“대학가는 3월과 9월이 가장 성수기다. 개강총회나 각종 모임 등도 많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을 보며 들뜬 마음으로 장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이제 손님은 커녕 길을 지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다. 매출도 많이 줄었다. 처음엔 30%, 50% 정도 줄며 유지비만 겨우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80%까지 줄어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박경자 씨가 21일 전한 하소연이다.

신촌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교가 밀집돼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상황이 가장 붐비던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발길이 끊기자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생 발길 ‘뚝’ 축적, 개강총회 등으로 성수기인데 손님은 커녕 거리 자체가 텅 빈 건물 곳곳 임대 안내문...상권 ‘냉골’ 노래방 업주 “많이 받아야 하루 3팀”

분기 서울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지난 1분기 대비 2만1178개 줄었다. 특히 음식 업종과 유흥업소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업종 상가는 1분기 13만4041개에서 2분기 들어서며 12만4001개로 감소했다. 노래방과 PC방 등을 비롯한 유흥업소도 1분기 1만1714개에서 2분기 1만454개로 10.8% 줄었다.

실제 이날 신촌에서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적힌 안내문이 쉽게 보였다. 임대 문의가 붙은 건물도 눈에 들어왔다. 한 건물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임대 문의 종이 붙어 있었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신촌역 인근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구모씨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등·하굣길 테이크아웃 주문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니 매출이 거의 반 토막”이라며 “거리두기가 1단계로 되면서 나아지지 않을까 여전히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 씨의 말처럼 이날 신촌 일대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왼쪽부터)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과 권리금 없이 임대 매물을 내놓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백지연 기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등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텅 빈 모습이다.

오전 시간을 고려해도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래방 업주들의 한숨도 이어졌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50대 윤모씨는 “코로나 이후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1단계로 들어서도 언제 또 영업 중단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렵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1단계 이후 영업은 가능해졌지

만, 사람들도 노래방은 아직 꺼리는 분위기”라며 “하루 많이 받아도 서너 팀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반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촌에선 계절별로 축제를 진행하며 인파를 모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제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 1면 ‘뉴메트로 5주년’서 계속

재계 “유연한 노동법 고용시장 활력 유도”

한편,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의 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의 등장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과 노용래 의원은 최근 이른바 ‘전 국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발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택배 노동자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기업의 육성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언택트’로 대표되는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으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을 유연화하면 고용시장에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따라온다는 게 재계의 진단이다.

/이현진 기자 lhj@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노래방이 ‘정상영업종 소득환비’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